



## 야무진 고딩, 세계사에서 숨겨진 이슬람을 발견하다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을 쓴 정다영(18·강릉

여고 2) 양은 여행기 겸 역사서인 이 책을 통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을 증명한다. 일반 역사서에서 한두 페이지로 짧게 기술된 이슬람권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난민촌에서 그렁그렁 눈물을 삼키던 아이들, 한국인과 너무도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는 터키인 등을 보는 저자의 눈을 엿보는 것은 이 책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재미이자 공부다.

“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고3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해 떠났죠.” ● 아버지(정인회·관동대 교양학과 교수)를 ‘지식공급원’으로, 언니(정다훈·19)를 최고의 대화 상대로 꼽는 그는 좋은 글이 나오면 책으로 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한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 느낀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당시 이 조숙한 여행가의 가방에 들어 있던 것은 세계사 교과서와 역사자료, 옷가지 그리고 노트북 정도가 다였다.

“물론 팔레스타인의 난민촌이죠. ‘모든 미국인이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던 미국인 자원봉사원들(‘CPT’ Christian Peacemaker Team)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 분쟁의 중심 지역에서 있었던 그는 ‘전쟁’을 ‘최악의 해결방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직접 만나본 이슬람권 사람들을 ‘유럽인 같은 엄숙함도, 미국인 같은 자유분방함도 아닌 뭔가 정연한 것, 그러면서도 내면의 평화 같은 걸 품고 있는 사람들’로 소개했다.

“세계가 넓다는 걸 알았고, 그만큼 시야도 넓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의외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던데 놀라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세계사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어른들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세계를 접하고 온 이 여행가는 글이라는 것을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것’으로 말한다. 제 입으로 자랑하기를 쑥스러워 하지만 그는 이미 2001년에 정신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전국논문대회에서 고등부 금상을 받을 만큼 ‘신예의 끼’를 보여주고 있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어렵게 쓰여진 세계사 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행’과 ‘세계사 공부’를 아우르고, ‘여행 전후에 읽은 책들’을 친절하게 소개한 점은 그의 애독가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평소 소설보다는 철학서, 인문서 위주의 책을 즐겨 읽는다는 다영 양은 추천도서로 권삼윤 씨의 《자존심의 문명 이슬람의 힘》과 《곰브리치 세계사》를 꼽기도 했다.

“여행은 가면서 느끼는 것이죠. 아마 이럴 것이다...고 짐작만 하고 떠나면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 18세의 이 야무진 고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통해 이슬람 세계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하는 눈’을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훗날 UN(United Nations)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일해 보고 싶다’고 이미 장래 설계를 마쳐놓았다. **★**

김청연 기자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  
정다영 지음 | 창작과비평사 |  
236쪽 | 값 9,800원